

- 주요 뉴스: 미국 경제,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및 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
 - ECB 주요 인사,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
 - 영국 총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며 성장 촉진을 위해 추진할 방침
 - 중국 인민은행, 주요 국영은행에 외환시장 개입 준비를 요청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 등이 영향

주가 하락[-2.1%], 달러화 약세[-0.6%],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상승과 경기불안 등으로 '20년 12월 이후 최저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약세 등으로 1.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8% 상승, 엔화는 0.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 예상 등이 배경
독일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우려 등으로 '11년 12월 이후 최고치

※ 원/달러 1M NDF환율(1429.0원, -9.9원) 0.6% 하락, 한국 CDS 상승

		9/29일	9/28일	전일대비			9/29일	9/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640.5	3,719.0	-2.11%	국채 금리 10y	미국	3.79%	3.73%	5bp
	유럽	382.89	389.41	-1.67%		독일	2.18%	2.12%	6bp
	중국	3,041.2	3,045.1	-0.13%		영국	4.14%	4.01%	13bp
	일본	26,422	26,174	0.95%		CDS 5y	한국	61bp	55bp
	한국	2,170.9	2,169.3	0.08%		중국	114bp	106bp	8bp
환율	달러지수	111.95	112.60	-0.59%	위험 지표	EMBI+	-	480	-
	유로화	0.9815	0.9735	0.82%		VIX	31.84	30.18	5.50%
	엔화	144.46	144.16	-0.21%		WTI유	81.23	82.15	-1.12%
	위안화	7.1249	7.2005	1.06%	원자재	구리	341.8	338.2	1.06%
	원화	1,438.9	1,439.9	0.07%		금	1,660.5	1,660.0	0.0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경제,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및 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

-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의지를 피력.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는 어느 시점에서 경제 성장을 우려하겠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확실히 떨어뜨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발언. 또한 통화정책이 경제활동을 충분히 위축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
-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연말까지 상당한 수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시장에서 올바르게 해석되어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 또한 영국 경제정책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긴축 움직임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9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1.6만건 감소한 19.3만건으로 5개월래 최저치 기록. 노동수요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이 재부각. 주택 및 주식 가격 하락 이외에 금리인상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이 부재(FWDBONDS의 Christopher Rupkey)
- 2/4분기 성장률 확정치(전기비연율 -0.6%)는 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했음을 확인. 또 다른 경제활동 지표인 실질 GDI(국내총소득) 증가율도 하락(0.4%→-0.3%). 연준의 긴축정책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기업의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Ladenburg Thalmann 자산운용의 Phil Blancato)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주요 인사,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심카스 총재와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뮐러 총재는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요구된다고 발언. 또한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도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첨언
- 포르투갈 중앙은행 센테노 총재는 ECB가 대차대조표 축소보다 금리인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다만 과도하게 빠른 금리인상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
- 핀란드 중앙은행의 렌 총재는 에너지 대책 관련하여 과도한 지출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 대규모 지출은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

■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 EU는 심각한 금융 위험에 직면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금융시스템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에서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 독일 9월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사상 최고치.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기인

-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0.9% 올라 전월(8.8%)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 이를 고려 시 9/30일(현지 시각) 발표되는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역시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이번 결과는 ECB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p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ING의 Carsten Brzeski)

■ 영국 총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며 성장 촉진을 위해 추진할 조치

- 트러스 총리는 최근 내놓은 경제 계획이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 또한 정부는 가계와 기업을 폭등하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부연

■ 중국 인민은행, 주요 국영은행에 외환시장 개입 준비를 요청

- 인민은행은 주요 국영은행에 역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도 및 위안화 매수를 준비하도록 연락.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당국은 위안화 약세로 인한 자본유출 증가 가능성을 경계

■ 세계은행 총재,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

- 맬파스 총재는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물가 상황을 극복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경고. 또한 미국은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지적. 이에 더해 유럽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은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30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 및 보우만 이사, ECB 슈나벨 이사 강연
- 미국 8월 PCE 물가지수,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 독일 8월 소매매출, 중국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영국 금융시장의 혼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까지 유발 - WSJ

(UK Market Woes Threaten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 최근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부조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영란은행의 긴급 국채매입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시장참여자들의 중론
- 트러스 총리와 콰텅 재무장관은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 보수당 내에서는 유권자 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24년 총선 전이라도 내각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 영국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정치 불안정까지 초래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화시켰다는 점

■ 영국의 금융 불안 사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탄광 속 카나리아' - 블룸버그

(Trussonomics Mess Has Even France Fearing Contagion)

-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영국의 금융 불안에 대하여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관리에 미흡한 국가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
- 프랑스의 경우, 내년 재정적자(GDP의 5%)는 영국(GDP의 9%)에 비해 작으나, 공공지출 규모가 선진국 중 큰 편이고 정부부채도 GDP의 110%를 상회. 연금 개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재정지원 확대 요구도 증가
- 영국은 파운드화의 준비통화 지위 및 비교적 양호한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떨쳐버리는데 실패. 올겨울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고유가 상황도 지속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전망

■ 미국 무역정책, 위기상황에서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전환 - Financial Times

(Is US trade policy undergoing Japanification?)

- 과거 일본은 정부 주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역정책과 반하는 내용. 하지만 최근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미국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과거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답습
- 특히 핵심 기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자체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 이처럼 미국은 중국이라는 큰 리스크를 대비하여 무역 및 산업정책을 마련

■ 국제 통화시장, 금리전망 뿐 아니라 경제 건전성에 주목할 필요 - Financial Times

(Currency markets are about to learn a lesson in defying economic gravity)

- 러·우 전쟁 직후,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이유로 유로화 강세를 기대. 하지만 국제금융위원회(IIF)의 예상대로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수출 둔화에 따른 유로존의 경상수지 악화가 반영되며 유로화는 약세
-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은 경상수지가 해외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통화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 대신 과거 완화적 통화정책 여건에서 사용되었던 금리전망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
- 경제여건 이외에 정치적 위험 및 안전성도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미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지만 달러화는 안전자산인 인식되어 강세

■ 미국 기업 실적과 실물경제 괴리, 경기침체의 신호일 가능성 - 블룸버그

(Recession Alert? Corporate Giants Are Massaging Their Earnings)

- 기업들은 경기침체 속에서 시장의 실적 기대 충족을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회계 조치(massage)를 취하는 경향이 존재. 이는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와 기업실적 간 괴리를 초래. 이를 고려할 때 S&P500 기업과 전체 기업의 이익 간 괴리가 확대될 경우 경기침체 전조로 인식 가능(Gavekal Research의 Charles Gave)
-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모든 경기침체 시기마다 위에서 제기한 방법이 경기침체 인식 신호로 유효함을 입증. 최근 S&P500 기업들의 이익이 전체 기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

■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장기 평균 상회하여 경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블룸버그

(Bond Markets Are Nearing a Painful Inflection Point)

■ 미국 노동시장, 경기침체 우려 속 고용 지속은 심각한 인력 부족 때문 - WSJ

(Why Are Companies Still Hiring When GDP Is Shrinking?)

■ 주요국 통화당국, 영국과 같이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노력이 요구 - WSJ

(The First Central Bank Casualt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